



## 실행임원회, 88년도 협의회 운영방향확정

실행임원회는 88년도 협의회 운영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집중적토론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기관들의 이익 대변자적 역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전담자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주요사업을 확정하였다.

### 88년도 중점사업 내용

- 가. 건강진단 내실화를 위한 집중교육 및 업무지도
  - '87년도 회원기관에 대한 업무지도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건강진단 실무자에 대한 교육.
  - 수시방문하여 검진 업무 지도.
- 나. 수가덤핑 방지대책 강구
  - 자율정화 위원회 지도 감시 활동 강화
  - 덤핑기관 적발시 제재 조치
  - 사업주에 대한 협조 공한 발송
  - 검진수수료의 수납 대항방안 검토
- 다. 검사방법 표준화 사업추진(연구 용역)
  - 각종 검사 방법의 표준화 제정
  - 검사기법 및 판정기준의 통일
- 라. 건강진단 홍보 강화
  - 사업주의 건강진단 인식 제고
  - 건강진단과 관련된 각종 기술정보 교류
- 마. 건강진단결과 전산화
  - 건강진단결과 전산화로 개인별 병력 관리

-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한 지역별, 사업장별, 건강관리대책 강구
- 질병자 또는 유소견자에 대한 계속적 사후관리
- 바. 회원기관 지원사업 개발
  - 검사 센터 설립 공동이용 검토 (실비 제공)
  - 지역별 공동연구 사업 지원
  - 각종 건강진단 서식 무료지급 (개인표, 결과표,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 등)

## 협의회 지부총회 개최완료

협의회 지부정기총회가 지난 3.15-3.26 사이에 개최되어 87년도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강평회와 아울러 88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가 있었다.

금번 각지부 총회에서는 협의회 업무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평가와 이해가 있는 반면 또한 건의사항도 많았던 총회였다. 특히 수가덤핑의 제도적 장치, 검진수수료의 대항수납 방안, 검진기관지정제도 개선등이 중점 논의사항이 되어 회원들의 건강진단 개선의지의 일면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협의회에서는 금번 지부총회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지부총회 개최일정은 다음과 같다.
  - 광주전남지부 (3.18 광주카톨릭회관)
  - 부산지부 (3.16 크라운호텔)
  - 대구경북지부 (3.26 동대구관광호텔)
  - 인천지부 (3.24 인천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 충남지부 (3.24 여성회관 4층)
  - 충북지부 (3.22 라이온스회관)
  - 서울지부 (3.24 전경련회관 대회의실)
  - 전북지부 (3.23 전주 코아호텔)
  - 경남지부 (3.23 가야백화점)
  - 경기지부 (3.26 안양상공회의소 4층)
  - 강원지부 (3.18 )